

기업 직무역량중심 채용 바람에…

# 대출 구직자 취업스펙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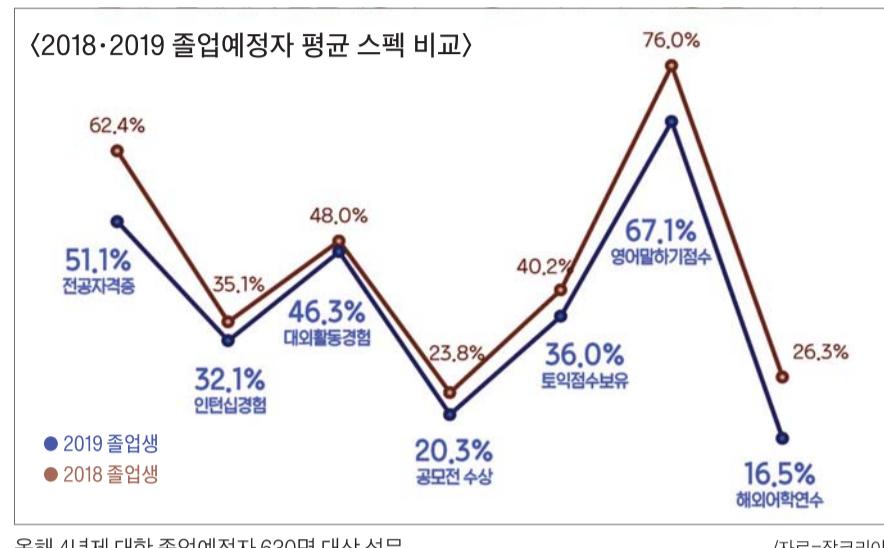
(을 4년제 졸업 예정자)

**잡코리아 졸업예정 구직자 설문**  
인턴십·대외 활동·공모전 출고  
희망하는 직무 관련 사회경험 등  
전공자격증·관련 공부에 포커스

기업의 신입 지원 채용이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변화하자, 대학생들의 자격증이나 어학성적 등 취업스펙도 낮아지는 등 취업스펙 쌓기 열풍이 한 풀 꺼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공분야 역량 강화 중심의 취업준비를 하는 취준생이 증가했다.

13일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예정자 820명을 대상으로 평균 취업스펙과 취업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아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630명과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190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평균스펙은 작년 동일조사에 비해 한층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평균 졸업학점은 3.5점으로 지난해 동일조사(평균 3.6점)와 비슷했으나, 전공자격증보유자 비율은 51.1%로 작년(62.4%)보다 11.3%포인트나 크게 낮아졌다. 인턴십 경험자 비율도 32.1%로 작년(35.1%)보다 3.0%포인트 하락했고, 대외활동 경험자 비율도 46.3%로 작년(48.0%)보다 1.7%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공모전 수상자 비율 역시 20.3%로 전년보다 3.5% 포인트 낮았다.



/자료=잡코리아

영어 시험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시험 성적 보유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최근 6개월 이내 토익점수 보유자 비율은 36.0%로 작년(40.2%)보다 4.2%포인트 감소했고, 영어말하기점수 보유자 비율도 67.1%로 작년(76.0%) 대비 8.9%포인트 크게 떨어졌다. 해외여학연수 경험자 비율 역시 16.5%로 작년(26.3%)보다 9.8%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토익점수 보유자의 평균 점수는 757점으로 작년(702점)보다 소폭 올랐다.

전체 응답자자 다수는 직무역량 중심의 기업 채용 방식의 변화가 자신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준비 방식에 그에 맞춰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성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복수응답)'에 대한 답변으로는 '전공

분야 전문지식 합양(전공공부)'를 꼽은 취준생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자격증 취득'(52.7%)을 준비했다는 취준생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아, 전공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취업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스펙을 쌓았다'(40.2%)는 답변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이외에 일바 여행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했다'(39.1%)거나 인턴 등 '취업하고 싶은 직무의 사회경험을 했다'(29.1%)는 취준생 순이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취업 스펙 쌓기가 주춤하는 이유는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 각 부문 직무중심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을 기존 정기공채에서 상시 수시채용으로 바꾸고 직무 중심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경희사이버대-동대문화재단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 산학협동 협약

문화예술 연계 학생 파견하고  
직원·회원 교육비 감면 혜택



경희사이버대와 동대문화재단은 지난 11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전공'으로 개편했다. 또 '문화매개행정전공'을 신설해 문화매개의 역사적 이해, 기업 경영, 문화예술기업 창업 실무 역량 등 문화예술을 매개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경희사이

버대는 이번 학과 신설 개편을 통해 사이버대학 최초로 문화예술, 미디어 영상홍보, 행정 실무적 역량의 융복합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총장직무대행은 "경희사이버대는 지구공동사회구현이라는 큰 가치 아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이라며 "협약을 통해 단순한 학비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재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 신입생 OT 사고 막는다… 교육부, 대학 10곳 안전점검

서강대 등 OT 현장 사전방문

교육부가 대학 신입학 시즌을 맞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 학생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 대학에 당부하고, 대규모 인원이 외부에서 숙박하는 10개 대학의 OT 현장을 사전에 방문해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신한대·서강대·동아대·부경대·가톨릭대·숭의여대·광운대·경기대·경

희대·인천대 등 10개 대학의 신입생 OT 현장 안전 점검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 대학은 참여 인원 규모와 외부 숙박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서강대의 경우 24일~26일 강원도 흥천에서 2800명이 참여하는 OT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현장 점검은 14일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북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매년 신

학기 대학 OT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당시 부산외대 신입생과 재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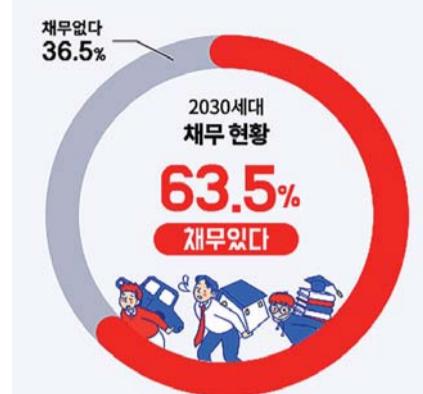
특히 외부 숙박이 포함된 대규모 신입생 OT의 경우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의 신입생 OT 운영지침을 보면, 대학이 주관하고 가급적 1일 이내 완료하고 2일 이상 진행 시 대학 관계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용수 기자

## 2030 절반 “난 적자인생”

사람인, 849명 채무 현황 설문

직장인 평균 채무 5411만원

20~30세 성인남녀 채무 현황



2030 성인남녀 849명 대상 설문. /자료=사람인

학비나 집담보 대출 빚을 갚으면서 사는 사회가 됐다면 '적자인생'이란 말이 흔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는 어떨까.

13일 사람인이 20~30대 성인남녀 849명을 대상으로 '빚 현황과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5%가 '빚이 있다'고 답했다.

빚이 있다는 응답은 구직자(54.6%)보다 직장인(66.4%)이 더 많았다.

구직자의 경우 빚을 진 주 원인으로 '등록금 등 학비'(35.4%) 대출이 1위로 꼽혔다. 이어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30.1%), '자취방 전월세 자금'(18.6%) 등의 순이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빚이 시작되는 구조로 파악된다.

이들은 평균 1876만원의 빚이 있었고, 빚은 취업 준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 때문에 '자주 우울해지는'(54.9%, 복수응답) 이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연봉 등 경제조건 우선으로 진로결정'(49.6%), '빨리 취업하기 위해 문지마 지원함'(46%),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38.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취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지출부담으로 스펙 준비 어려움'(34.5%), '단기직, 계약직을 전전'(29.2%) 등의 영향도 있었다.

직장인의 빚 원인 1위도 '등록금 등 학비'(46.4%)였고, 30대는 '전월세 자금'(25%)으로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한 적자가 주거비로 더 불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용수 기자

## 인도네시아어 원어민·독학 강좌 론칭

### 시원스쿨 독해 등 강좌 8개 마련

특히 원어민 원다 강사는 한국어 실력이 출중해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고, 원어민만 알 수 있는 미묘한 의미와 차이까지 놓치지 않고 전수할 예정이다. 또 2주와 1개월 학습 플랜을 제시, 훈자서도 체계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고, 독해력을 바탕으로 문법과 어휘, 듣기 등 여러 영역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시원스쿨 인도네시아어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어 독해' 강좌를 비롯해, 독학으로 인니어를 배우려는 초급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어 왕초보 탈출 1탄'과 현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완성 코스인 '인도네시아어 왕초보 탈출 2탄' 등 총 8개 강좌를 제공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무료 서비스와 프로모션도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박용범 교수, 세계줄기세포정상회의 '젊은 연구자상'

### 중앙대 의학부 교수

박 교수는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재직 중으로 관절염, 관절연골에 대한 줄기세포 및 재생에 대한 연구와 논문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젊은 연구자상’은 2018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줄기세포 관련 논문 주저자들 중 만 40세 미만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업적이 가장 뛰어난 1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교수는 관절염 환자의 줄기세포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로 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